

7: 지금 일본 아트씬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술을 보는 감각과 안목은 단순히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자체도 더욱 성숙하고 살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강하게 실감하는 것은 엔화의 상대적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만과 비교해도, 지난 10년 동안 엔화 가치는 거의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물론 경제에는 복잡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국가의 '미의식'과 '문화에 대한 감수성' 역시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나라 자체의 가치로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ART를 이해하고, 문화에 투자하며, 가치를 키워가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창조성과 풍요로움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에서 'ART'로」라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전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본의 미래와 가치관을 다시 질문하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이 기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해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라고 과장하거나, 본래 비평성과 역사성을 가져야 할 미술관조차 화제성과 소비성에 휩쓸리는 장면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 컬렉터와 갤러리스트, 평론가들로부터,

“일본의 아트씬은 괜찮은 건가요?”

라는 걱정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일본인은 훨씬 더 섬세하고 깊은 미의식을 가진 민족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일본의 본래 문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잃어가고 있는 미의식과 문화적 감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와 연결해 나가는 것.

그 도전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